

## 미국 재정절벽에 대비한 글로벌 자산운용업계의 반응

-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대한 우려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및 미국의 자산운용업계는 서로 대비되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됨
- BoA Merrill Lynch의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식시장 및 거시경제변수에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되고 있으면서도 경기상황에 대한 전망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재정절벽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대선결과 및 정치권의 타협에 따라 그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음

- 글로벌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sup>1)</sup>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 및 미국의 자산운용업계는 서로 대비되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됨
  - 유럽내 자산운용사들은 미국 대선으로 인한 주식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자산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최근 유럽 자산운용사인인 F&C Investment의 투자전략 책임자인 Ted Scott는 미국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여 유럽시장에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함
    - 2012년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향후 긴축재정에 대한 우려로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또한 유럽내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오바마정부 수립 이후 미국과 유럽의 주요 증시지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 시장지표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음
    - 오바마정부 수립 이후 2012년 9월말까지 S&P500지수는 약 48% 상승하였으며, 동일기간 영국의 FTSE는 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현재 10년 만기 미국 국고채수익률과 S&P500 선물수익률 사이의 스프레드가 600 basis 포인트로 벌어지며 시장에서는 대선에 대한 충격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함
  - 반면, 미국내 펀드전문가들은 향후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한층 방어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짐
    - 이들은 현재는 대선의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거나 정치권에서 추가적인 합의를 통해 대선 이후 급격한 재정절벽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1)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경우, 오바마정부가 2011년 8월 합의한 예산관리법에 따라 2021년까지 제량지출의 상한을 설정한 후 2013년 1월부터 예산이 자동삭감되도록 한 것과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부시의 감세정책, 의료급여 등 사회보장세율 인하 및 장기실업수당 시한 연장 등의 조치가 내년부터 종료됨으로써 대규모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의미함



- 미국의 펀드매니저들은 현재 미국내 주식포트폴리오를 대형주 또는 변동성이 적은 배당주식 위주로 재구성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미국 BoA Merrill Lynch의 10월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펀드매니저 응답자의 약 4분의 3이 현재 주식시장 및 거시경제변수에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향후 주식시장 및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재정절벽을 앞으로 금융시장에 미칠 가장 큰 위험요인(one tail risk)이라고 분석하는 응답자는 8월 26%에서 9월 35% 다시 10월 42%로 집계되어 증가하는 추세임
- 반면, 유럽발 국제위기를 첫 번째 위험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월 33%에서 10월 27%로 감소하고 있음
-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향후 1년간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이라 보는 투자자 비율이 20%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미국과 유럽 자산운용업계 모두 각자 지역내 주식 편입비중을 10월 이후 증가시킨 것으로 조사됨
  - 향후 1년간 기업전망에 있어서도 이익 감소를 예측한 응답자 순(net)비중은 2012년 10월 11%로 전월 28%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재정절벽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대선결과 및 정치권의 타협에 따라 그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음

- 금융서비스회사인 CMC Markets에 따르면, 최근 보고서를 통하여 1960년도 이후 미국의 대통령선거 이후 2개월간 주식시장을 분석한 결과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0.53% 상승한 반면, 민주당이 집권한 경우 3.53%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고 밝힘
- 현재 각 정당이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공화당은 하원에서 민주당은 상원에서 각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태이며 상하원 모두 합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재정정책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 공화당은 의료비 지출 및 공무원 감축 등을 통한 재정지출 감소를, 오바마정부와 민주당은 부시 세금감축안 연장에 반대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와 국방비 축소를 통해 적자폭을 줄이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미국의 조세정책연구기관(Tax Policy center)은 2013년 재정절벽이 현실화 될 경우, 약 5,000억 달러 이상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 보고하였으며 미국인의 90% 이상이 자신들의 세금부담도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예정대로 각종 세금 및 재정지출 정책시한이 마감되면 2013년 약 6천억달러의 재정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GDP 규모의 4% 수준임
  - 현행 정책대로 추진될 경우 2013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미국경제성장률이 -1.3%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함

선임연구원 장병훈